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8(화) ~ 2022.3.14(월)

제공일시 2022 03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8(화) ~ 2022.3.14(월)

제공일시 2022 03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고위 지속가능경영자문회의 출범

-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0일(현지시각)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고위임원 모임인 '**NYSE 지속가능 경영자문회의(Sustainability Advisory Council)**'의 출범을 발표
- 자문회의는 **ESG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모범사례를 식별하고 개발, 공유할 예정**
- 뉴욕증권거래소의 린 마틴 사장은 "**ESG는 NYSE의 대형 상장기업 CEO, IPO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등 모든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번 자문회의는 기업들이 이 복잡하고 진화하는 지형을 향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
- 엘리자베스 킹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규제 최고책임자 겸 ICE ESG 대표가 자문회의의 의장을 맡을 예정

(ESG Today, 2022. 3. 10) Emanuela Kerencheva  
<http://www.esgtoday.com/nyse-launches-advisory-council-of-senior-sustainability-officers-from-listed-companies/>

### 2. 아마존·MS 등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 · 한국은 '0'건

- RE100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PPA'가 급증**
- 블룸버그NE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이 PPA를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31.1GW(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
-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해 재생에너지 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평가됨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대형기업들의 PPA 계약이 활발해지면서 미주의 규모가 전 세계의 65.2%를 차지
- 하지만 **국내에서는 망 이용료, 수수료 지급 등으로 인해 다른 이행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PPA 이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음**

(MBC 뉴스, 2022. 3. 13) 서유정 기자  
[https://news.mbc.com/news/2022/renewable/energy/20220313\\_3667181](https://news.mbc.com/news/2022/renewable/energy/20220313_3667181)

### 3. 대만 폭스콘 '전기차 동맹'에 대기업 100여곳 합류

- 아이폰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일본 대표기업 100여곳을 포함해 세계 2200여개 기업이 참여**
- 폭스콘은 글로벌 생산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2020년 10월 전기차 공동개발 계획을 처음 발표
- 해당 프로젝트에 일본의 완성차 업체 계열사들이 다수 참가해,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회사가 피라미드식으로 늘어서는 수직 계열화 구조에서 주요 기업이 핵심 부품을 나눠서 만드는 수평 분업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한국경제, 2022. 3. 13) 정영호 기자  
<http://news.koreajoongnae.com/articles/view/20220313001>

### 1. 골드만삭스, 러시아서 철수…월가 투자은행 최초

- 골드만삭스가 월가 투자은행 최초로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결정
-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전 세계 고객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
-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골드만삭스의 행보는 러시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됨

(한국경제TV, 2022. 3. 11) 정연국 기자  
<http://www.koreatv.co.kr/NewsCenter/News/News?artId=945402203110326496>

### 2. 공정위, ‘삼성SDS 부당지원’ 제재 검토 나서나…‘공정거래법’ 상 판단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선
-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위에 ‘삼성생명의 삼성SDS 대상 지연배상금 미청구’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분석해 이달 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

(더퍼블릭, 2022. 3. 8) 박소연 기자  
<http://www.dailink.com/news/newsview.php?mode=0225253362632>

### 3. ‘탈원전 스톱’ 탄소중립 방법론 바뀐다…尹 기후·환경정책은

- 윤석열 정부의 기후 환경정책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신한올 3, 4기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재생에너지 투자는 태양광에 집중하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25%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발표
- 부처 대신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업계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현 정부의 목표인 2040년보다 이른 2035년 내연기관차 출시 중단도 공약으로 내세움
- 그 외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4대강 재자연화 폐지, 음식쓰레기 분쇄기 허용 등의 공약도 존재

(중앙일보, 2022. 3. 12) 편광현 기자  
<http://www.joongang.com/article/20220312>

(중앙일보, 2022. 3. 12) 윤례민, 김홍준 기자  
<http://www.joongang.com/article/20220312>

(조선일보, 2022. 3. 11) 전준범 기자  
[http://biz.chosun.com/pk/pk/ky/ky\\_s20220311151633664440423400493847am\\_suse+sedam\\_med+mcdlgmlm\\_campaign](http://biz.chosun.com/pk/pk/ky/ky_s20220311151633664440423400493847am_suse+sedam_med+mcdlgmlm_campaign)

### 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편의성 바꾼다

-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일부 변경됨
-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변경했다고 밝힘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남

(스포츠허럴트, 2022. 3. 10) 손재철 기자  
[http://sports.heralldot.com/View.html?cid=a20220310493838e2\\_e29232330493838e2\\_e29232330493838e2](http://sports.heralldot.com/View.html?cid=a20220310493838e2_e29232330493838e2_e29232330493838e2)

## 1. 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금융지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
- 이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용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유가 등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

(뉴스1, 2022. 3. 11) 김혜지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ED%8C%A8>

## 2. “직원자살 책임 잇은 인사”...네이버 직원들 ‘주총 반대’ 인증 붐

- 네이버 임직원들이 이번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채선주 네이버 최고소통책임자(CCO)’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 인증’ 릴레이를 벌이고 있음
-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네이버 직원이 사망했을 당시 인사업무 총괄 임원이던 채 부사장에게 ESG 경영 등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의사표현
- 최근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채 부사장의 선임 반대 글과 댓글이 170여건 올라왔고, 일부 임직원들은 자사주로 보유하던 주주의결권으로 온라인 주총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뒤 ‘투표 인증’을 하고 있음

(한겨레, 2022. 3. 7) 천호성 기자  
<https://www.hanjin.com/energy/3133952.html>

## 3. 삼성 SDS ‘ESG 플랫폼’ 개발.. 사내 시범적용

- 삼성 SDS가 전략수립과 정보관리, 모니터링, 과제관리, 공시 관리 등 ESG경영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인 ESG 플랫폼을 개발
- 사내에 적용한 ESG 플랫폼을 안정화 및 고도화한 후 향후 관계사에 적용하고 외부에도 공개할 계획
-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데이터와 시스템을 ESG 관점으로 재구성해, 이해관계자 소통 등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 세일즈포스, SAP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들까지 ESG 데이터를 클라우드형 플랫폼에 적용하는 SaaS형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어 국내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

(전자신문, 2022. 3. 10) 권혜미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310000206>

## 4. “尹 시대 최고 수혜기업은 두산중공업” 기대 만발

- 두산중공업이 윤석열 시대 최고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 ‘탈(脫)원전 폐기’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예상되기 때문
- 동시에 최근 최단기간 채권단 졸업에 대규모 해외 수주라는 겹경사도를 맞음
-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두산중공업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에너지경제, 2022. 3. 13) 김아름 기자  
<https://www.ekr.kr/web/view.php?id=20220313000202>

## 1. CJ제일제당, 70년 무노조경영 깨지나 / 조직문화 관련 소식

- **CJ제일제당**은 1953년 설립 이후 70년간 무노조였으나, **최근 노조집행부**를 꾸리고 한노총 산하 식품산업 노동연맹 소속으로 **조합원 모집** 중
-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합원 모집은 신원노출을 막기 위해 카톡 채널계정 등에서 진행중
-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수시포상제도가 실적상승비결**이라는 소식
- 2018년 큰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수시로 보상하는 포상제도인 'RMI하이로'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임직원 330여명이 포상금 6억여 원을 받음
- 지난해 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인텔과 아마존이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그로 인한 인재 유출 가능성을 위험요인 중 하나로** 명시함
- 팬데믹 재택근무 이후 기술인재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사회 배경이 반영된 결과

(한겨레, 2022. 3. 10) 옥기원 기자

<http://www.han겨레.com/article/newspaper/20220310/15171519-0022011>

(매일경제, 2022. 3. 10) 박윤규 기자

<http://www.mk.com/article/newspaper/20220310/15171519-0022011>

(조선일보, 2022. 3. 10) 신수지 기자

<http://www.chosun.com/article/newspaper/20220310/15171519-0022011>

## 2. 물류업계, 친환경 운송수단 강화...전기차 전환 속도

- 물류업계가 친환경차 도입에 적극 나섬
- **CJ대한통운**은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전기, 수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전기택배차 40여대 운용을 시작한 데에 이어, 현대차 11톤급 수소화물차 2대를 물류현장에 투입함
-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프로젝트인 'K-EV100'에 참여해 70대의 전기화물차를 운영 중이며, 올해 콜드체인 전기화물차 20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
- **현대글로벌비스** 역시 콜드체인 전기차량을 배송 현장에 시범 도입함
- **DHL**은 지난해 45대의 전기 배송차 도입에 이어 올해 56대를 추가로 도입해, 약 21%를 전기차로 운영하며, 배송 트럭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음
- DHL은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67대의 배송 트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면서 "차량당 CO2 배출량을 1,000kg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인더스트리 뉴스, 2022. 3. 11) 권선형 기자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seq=4540>

(전자신문, 2022. 3. 14) 박준호 기자

<http://www.etnews.com/article/newspaper/20220314/15171519-0022014>

## 3. 농협·산은·신한금융, '탄소배출' 시장서 미래금융의 길 찾다

- NH농협·산업은행·신한금융그룹 등 은행권이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뛰어들어** 주목을 받고 있음
- NH농협·산업은행은 이달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작
- 과거엔 ESG 경영을 위해 직접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면, 올해는 관련 **금융상품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분위기라는 분석

(농업경제신문, 2022. 3. 11) 김자혜 기자

<http://www.naej.com/news/article/view.html?seq=11174>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3.8(화) ~ 2022.3.14(월)

제공일시 2022 03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위해 “REPower” 발표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한 유럽연합(EU)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REPower EU’ 계획을 8일(현지시간) 발표**

- 가스 소비량의 9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이 중 45%가 러시아산이고 원유는 25%, 석탄은 45%로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음. 보다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EU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로 한 것

- REPower EU 계획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해 900기가와트(GW) 생산을 추가**할 방침. 이 같은 계획에 모건스탠리(MSCI)는 "EU가 기존에 계획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보다 2배 가량 상승된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중국의 태양광 수출이 15%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

(Bloomberg Green, 2022.3.9) Luz Din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09/eu-reduces-russia-energy-gas-purchases-to-keep-ditch-russia>

(EUR-LEX, 2022.3.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20308>

(Bloomberg Green, 2021.11.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1-04/eu-reduces-russia-energy-gas-purchases-to-keep-ditch-russia>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위한 EU의 REPower EU 계획]

REPower EU 목표	집중 계획	핏포55와 연계한 2030까지 계획	대응책
가스 다각화	非러시아산 천연가스 확보		- LNG 다각화 - 파이프라인 가스 다각화
	재생가스 확대	바이오메탄 17 입방 미터 (bcm) 생산해, 17bcm 절약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을 35bcm으로 증가
		560만톤 재생가능한 수소로 9~18.5 bcm 절약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및 수입 2천만톤으로 확대
전기 공급	주택	에너지 효율 제고로 38bcm 절약	EU 전체 에너지 절약(예, 온도 조절 장치를 1°C 낮추어 10bcm 절약)
		루프탑태양광으로 1년 최대 15테라와트시(TWh)	
		2030년까지 3천만개 열펌프 설치해 35bcm 절약	열 펌프 설치 2배로 늘려 향후 5년동안 누적 천만개 확보
	전력	480기가와트 풍력, 420기가와트 태양광 확보해 170bcm 절약(5.6 Mt 녹색 수소 생산)	

-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부터 제품 생산과 설비까지 시장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
-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태양광 셀 생산능력 338기가와트 가운데 중국 기업이 283기가와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그 가운데, **지난해 중국 태양광 생산의 40%는 유럽으로 수출되었는데, EU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수출량은 15% 이상 더 증가할 전망**.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롱리친환경에너지기술(Longi Green Energy Technology)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관측
- 더불어, 블룸버그 그린은 그동안 내수시장에 집중해온 중국 풍력 장비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도 유럽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글로벌 시장을 모색중인 중국 풍력업체들이 상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금뢰 풍력발전(Jinlei Technology)과 천순풍력에너지(Titan Wind Energy Suzhou)가 유럽의 수요에 맞춰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
- 한편, **유럽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천연가스 및 전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자사 지붕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그린이 밝힘.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3주 동안 3배 가량 증가해, 설비 기간이 짧은 루프탑(rooftop, 옥상용) 태양광 등으로 전력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